

# 전북 고려청자 문화 '총망라'

부안청자박물관서 28일부터 10월 25일까지 기획전시  
 '백미' 모란넝쿨무늬 장식 매병·표주박 모양의 병 소개  
 수중·인간·연화세계 표현 독특한 무늬로 가치 높아

부안군은 오는 28일부터 10월 25일까지 3개월간 부안청자박물관에서 기획전시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한국 도자문화의 중심지인 전북도의 고려청자 문화와 유적을 조명하고, 역사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전북지역에서 고려청자와 관련한 대표적인 생산유적으로는 서해안 줄포만에 연결한 부안군 보안면 유천리, 부안군 진서면 진서리, 고창군 아산면 용계리와 동부 산악지대에 자리한 진안군 성수면 도룡리가 있으며, 모두 국가사적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다.



상감동화 모란넝쿨무늬 매병(왼쪽)과 인물무늬 표주박모양 병.

이 유적들은 1960년대부터 최근까지 수차례에 걸쳐 체계적인 문화재 발굴이 이루어졌으며, 조사결과 10세기 후반부터 14세기 전반에 이르는 다양한 종류의 청자가 대량으로 제작되었음이 밝혀졌다. 이번 전시에서는 부안, 고창, 진안의 고려청자 생산유적에 대하여 조사연혁과 가마 유구, 출토유물 등을 상세히 소개하고, 특히 가마터에서 발견된 다양한 형태의 청자와, 그릇을 굽는데 이용했던 도구 등 200여점을 실물 전시한다.

이 유적들은 1960년대부터 최근까지 수차례에 걸쳐 체계적인 문화재 발굴이 이루어졌으며, 조사결과 10세기 후반부터 14세기 전반에 이르는 다양한 종류의 청자가 대량으로 제작되었음이 밝혀졌다. 이번 전시에서는 부안, 고창, 진안의 고려청자 생산유적에 대하여 조사연혁과 가마 유구, 출토유물 등을 상세히 소개하고, 특히 가마터에서 발견된 다양한 형태의 청자와, 그릇을 굽는데 이용했던 도구 등 200여점을 실물 전시한다.

이를 통해 진안 도룡리에서 10세기 후반 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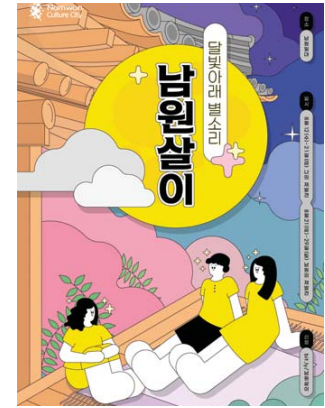
성 있는 매병이고, 다른 한 점은 표주박모양의 병으로 수중세계와 인간세계, 연화세계를 표현한 독특한 무늬가 상감된 작품으로 가치가 높으며, 두점 모두 부안 유천리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수작이다. 군 관계자는 "전북 최초로 부안·진안·고창 지역의 고려청자 생산유적을 총망라한 이번 기획전시에 아낌없는 관심을 부탁드리며, 전시를 통해 찬란한 고려청자의 맥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전북의 고려청자 문화와 역사에 많은 분들이 귀 기울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 전북문화관광재단 '쿨 비즈니스 데이'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기전, 이하 재단)은 '쿨 비즈니스 데이'를 운영한다. 재단은 지난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한달간 '노 타이, 노 재킷, 반바지 착용' 등 복장 간소화를 실시한다. 이번 '쿨 비즈니스 데이'는 간편하고 시원한 옷차림을 통해 직원들의 창의적 사고를 증진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직장 내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함이다. 단, 민원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복장은 자체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출범 5년 차를 맞은 재단은 '지역과 상생하는 문화와 관광플랫폼'이라는 비전을 세우고 '창의, 포용, 협력'을 핵심가치로 지난 7월 1일 선포식을 가진 바 있다. /장은성 기자

## 달빛아래 별소리 '남원살이'

남원시, 만 309세 이하 청년 참가자 30일까지 모집



남원시 문화도시사업 추진위원회(위원장 류영근)는 외부 청년을 유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남원 고유의 자원을 전통, 소리, 자연 등을 알리기 위한 청년 지역살이 프로그램 '달빛아래 별소리 남원살이' (이하 남원살이) 참가자를 오는 30일 오후 2시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남원살이는 '남원 자연 속에서 나의 낭만을 마주하는 시간'이라는 콘셉트로,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이 남원의 자연을 마주하며 여유로운 시간을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1차와 2차로 나누어 진행될 예정이다.

프로그램 참여 청년들은 참여과정에서 느낀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남원 문화지도, 살이 일기 등의 결과물을 제작해 제출하게 되며, 이 자료는 향후 남원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모집인원은 10명 내외로 전국 만19세~만39세 이하의 청년이면 모두 가능하고, 참여 신청은 Chrome 브라우저

또는 모바일 기기로 웹페이지([bit.ly/남원살이](http://bit.ly/남원살이))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남원살이 사무국(0507-1314-8570)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며, 오는 27일 오후8시에 공개되는 남원문화도시 유튜브 채널 사업설명회에서 내용도 확인할 수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청년에게는 새로운 가능성을 개척하는 기회와 환경을 제공하고, 지역에는 청년인구 유입을 통해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또는 모바일 기기로 웹페이지([bit.ly/남원살이](http://bit.ly/남원살이))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남원살이 사무국(0507-1314-8570)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며, 오는 27일 오후8시에 공개되는 남원문화도시 유튜브 채널 사업설명회에서 내용도 확인할 수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청년에게는 새로운 가능성을 개척하는 기회와 환경을 제공하고, 지역에는 청년인구 유입을 통해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하천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km<sup>2</sup>,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슬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 전주천 환경개선 자원봉사자 모집

문의전화 063-288-9700



(재)고창문화관광재단은 최근 직원 간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갑질행위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 '갑질행위 예방과 인권 감수성'

고창문화관광재단, 예방교육 실시

(재)고창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은 최근 직원 간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갑질행위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고창문화의전당 시민아카데미에서 재단 직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갑질행위 예방과 인권 감수성'이라는 주제로 강연이 진행됐다. 이날 강연을 맡은 오진호 강사는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직장내 괴롭힘)는 반드시 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단은 이번 강연을 통해 일상에서 무심코 일삼아 온 갑질 행태를 점검하고, 적절한 호칭, 존대표현 등을 지켜나가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 갑질 없는 건전한 조직문화를 만드는 데 지속적인 직원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체온 측정과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하는 등 직원 방역수칙을 준수해 교육을 진행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경력단절예방 UCC 공모전

(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전북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윤애 센터장)는 8월 20일까지 '경력단절예방 UCC 공모전'을 개최한다.

도내에서 처음 개최되는 UCC 공모전의 링크(W-link)는 women(여성)의 work(경력)을 Link(잇다)의 의미로, 여성이 일과 가정의 불균형으로 일을 포기하지 않도록 사회문화 확산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UCC 영상 공모전의 주제는 ▲가정문화(육아 및 가사분담) ▲기업문화(여성고용유지 및 복귀지원, 유리천장 제거) ▲사회문화(양성평등, 일과 가정의 양립) 등이다. 순수 창작 영상물이면 도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작품선정은 외부 심사위원 심사를 거쳐 총 4편의 작품을 선정(최우수상 1, 우수상 1, 장려상 2)할 예정이며, 오는 9월 7일 경력단절예방의 날을 맞아 최우수상에게는 상장과 50만원 부상이 수여된다.

또한 수상작들은 센터 홈페이지 게재 및 IPTV방송 송출, SNS 등을 통해 경력단절예방에 대한 대국민적 관심과 동참을 구할 예정이다. 이윤애 센터장은 "통계상으로 전라북도 경력



단절여성들의 수는 2018년 기준 4만8,000명에서 2019년 3만9,000명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이들이 힘들지 않길 바란다"며 "경력단절예방 UCC 공모전을 통해 경력단절여성들이 역량을 맘껏 발휘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센터는 9월 7일 경력단절예방의 날을 기념해 ▲경력단절 없는 전라북도 선포식 ▲W-link(링크) 캠페인 5행시 공모전 ▲전라북도 전역 랜선 경력단절예방 캠페인 ▲공공기관 전광판 W-link(링크)캠페인 표출 등 다양한 행사가 운영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취업지원팀(063-254-3715)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